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기린다

오늘 지역 원로·민주 인사 등 참여 행사위 출범

8월17일 추모헌정음악회 등 기념행사 기획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8월 18일)를 앞두고 광주지역 추모행사를 준비하는 행사위원회가 출범한다.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광주행사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김대중홀에서 지역 원로와 민주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는다.

'시민평화제 아! 김대중'을 주제로 열리는 서거 10주기 행사는 대한민국 100년, 김대중 서거 10년의 의미를 전승하는 행사로 마련된다.

행사위원회는 이번 행사를 평화와·인권, 민주주의 길을 굳건히 지켜온 김대중 대통령의 삶과 사상을 재조명하고, 촛불혁명과 남북화해,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과제와 해법을 찾아갈 계획이다. 또 시민평화제를 통한 김대중 정신을 세계로, 시민들에게로 알리는 활동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10주기 행사는 특히 한국의 민주화를 이끌었던 '거목'이자 김대중 대통령의 동반자인 이희호 여사가 지난 10일 향년 97세로 별세한 뒤 2개월여 만에 갖는 행사로 개최돼 의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기념식은 오는 8월 17일 오후 7시 전야제로 '아! 김대중 추모헌정음악회'가 열리고, 8월 18일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 홀에서 오후 3시30분 추모식을, 오후 4시30분 황석영 선생 초청 '아! 김대중, 그의 삶과 사상'이라는 특별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다채로운 추모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8월 16일 학술행사에는 독일 베를린자유대학의 베르너 페니히(Werner Pfennig) 명예교수가 기조강연자로 나와 '세계적 지도자로서 김대중'이라는 강연을 한다. 또 8월 5일부터 25일까지 10주기 사진·영상전이 열리고, 7월 1일부터 본 행사 당일인 8월 18일까지 시민평화제 공익캠페인이 있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김대중 대통령 이미지를 넣은 기념배지 등도 제작한다.

정혜숙·정상용 공동행사위원장은 "이번 10주기 행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에 추진되게 돼 의미가 특별하다"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김대중 대통령의 삶과 사상을 재조명하고, 이를 널리 알려 미래세대를 포함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광주시의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지원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조선대학교 등 수영대회 경기장을 방문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대회 성공과 한반도 평화정착 기여"

광주시의회 북한 선수단 참가 촉구 결의안 채택

광주시의회가 광주세계수영대회에 북한선수단의 참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광주시의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지원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북한선수단 참가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대회 참가등록 마감일인 지난 12일까지 북한선수단이 참가신청을 하지 않자 북한 수영협회장에게 대회에 참가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위는 결의안에서 "북한은 다이빙 등에서 세계 최고 기량의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북한 선수단이 참가할 경우 평창동계올림픽처럼 대회 성공은 물론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의회 수영대회 지원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광주수영진흥센터 건립 추진 건의안'도 함께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수영저변 확대 등을 위한 광주수영진흥센터 건립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김용집 위원장은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개회식에서 끝까지 북측의 자리를 비워둔 채 남북이 함께 하기를 기원했던 그 간절한 마음이 올해 7월에는 반드시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심정으로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전남 10대 우수 브랜드쌀 1천억 목표 잰걸음

제주·영남권 이어 수도권서 릴레이 홍보

전남도가 앞으로 2개월 동안 수도권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홍보·마케팅 행사를 갖는다.

농협 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진행하며, 전남 우수 브랜드쌀 판매액 1,000억원 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됐다.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홍보·마케팅 행사는 지난 3월 제주를 시작으로 4~5월 부산·양산·김해를 비롯한 영남권 등 전국 릴레이로 진행중이다. 지난해 판매액은 890억원이었다.

제주·영남권 행사에선 현지 주요 물류업체, 소비자들의 구매 반응이 매우 높게 나타나 전남 쌀 판매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수도권 행사에는 올해 우수 브랜드쌀로 선정된 10개 시군 경영체가 참여한다.

전남쌀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샘플쌀 및 전남산 양파 1망(3.0kg) 씩을 증정품으로 제공해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파 홍보 및 소비 촉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김영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16일 "전남의 고품질 우수 브랜드쌀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유통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행사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불합리 자치법규 150건 정비한다

광주시, 시민불편 해소 기업활동 지원 중점

광주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고 기업 활동을 돕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자치법규를 본격 정비한다.

광주시는 16일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주관해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정비와 별개로 자치법규를 통·폐합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자치법규 내 정비가 필요한 150여 건을 발굴했다.

주요 발굴사항은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았으나 현행법령과 불일치한 경우 ▲제·개정 이후 여건변화로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 ▲명칭 현행화 및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등이다.

시는 발굴 결과를 토대로 법무담당관 중심으로 해당 실국과 '자치법규 정비 협업조직'을 꾸려 자치법규 입안 지원 등 본격적인 정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채경기 광주시 법무담당관은 "시민 권리를 제약하거나 부당한 의무부과, 상위법령 불일치와 개정사항이 미 반영된 자치법규 등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시민 불편을 해소, 기업활동이 활발히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광주 올 1기분 자동차세 부과

광주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6만7,025건, 255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1일 현재 광주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자동차(승용·승합·화물·특수), 125cc 이상 이륜차, 건설기계가 납부 대상이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하며, 올해 상반기에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일시납)한 차량은 납부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 상반기 선납한 차량은 37만6,882대로 집계됐다.

/황애란 기자

"6·15는 평화 씨앗…통일 힘 보태겠다"

김영록 지사, 남북공동선언 19주년 소회

김영록 전남지사가 6·15 남북공동선언 19주년과 관련, "19년 전 시작된 한반도 평화의 여정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도민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를 하나하나 실현해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은 역사상 최초로 남북정상이 만나 화해와 협력을 다짐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의 씨앗"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양 순안공항에 첫발을 내딛던 순간을, 두 정상이 뜨겁게 양손을 맞잡던 모습을, 자신도 모르게 흘러내리던 눈물을, 국민들은 생생하게 기억한다"며 "이후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 2018년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등 한반도 평화의 여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근 '오슬로 연설'을 통해 '국민을 위한 평화(Peace for people)'를 말씀하셨고, 지난 10일 소천하신 이희호 여사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도 국가와 국민, 민족통일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말씀을 남기셨다"며 "전남도는 남북 국민 모두가 '공기처럼 느낄 수 있는' 일상적 평화에 대한 구체적 희망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농수산업을 비롯해 문화·체육, 에너지·자원 등 남북교류에 앞장서겠다"며 "국내 유일 화순 백신산업 특구에서 생산되는 의약품과 신안 천일염을 북한에 보내고, 국제수묵비엔날레에 북한 작가를 초청하는 등 정부와 발맞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

전남도 오늘부터 해양쓰레기 집중 수거

23일까지 정화주간…15개 시군 1,200명 참여

전남도가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을 17일부터 23일까지 운영한다.

행사 기간 전남 15개 시군별로 지역 유관기관과 주민·어업인 등 1,200여명이 해양쓰레기 수거 작업에 참여한다.

섬 지역이나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는 취약지 해안가 등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해양환경 정화선을 활용한다.

오는 19일에는 신안군 자은면 신전해수욕장에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신안군·서해지방해양경찰청·서해어업관리단·목포신안군수협·해양환경공단·어촌어항공단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도 펼친다.

전남도는 올해 3월부터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 '연안정화의 날'로 지정해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활동을 정례화하고 있다.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선포하고, 올해 4월에는 어업인단체를 중심으로 자정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해양쓰레기의 효율적 수거 처리를 위해 해양환경공단·수협중앙회·수산업경영인연합회와 업무협약도 했다. /정근산 기자